

TV

TV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오전 ●오후

TV schedule table for KBS1, KBS2, MBC, KBC/SBS, EBS. Includes programs like KBS 뉴스, MBC 뉴스투데이, EBS 최고의 교재, and various dramas.

“망가진 모습 보여주려 끊었던 담배 다시 피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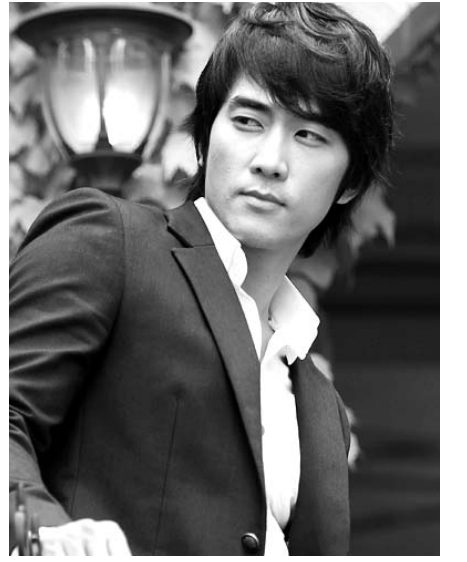
송승헌, ‘영웅본색’ 리메이크 ‘무적자’서 영춘역

“영웅본색은 저나 제 선배 또래의 남자들에게 로망이었던 영화입니다. 주윤발이 쌍권총을 쓰고, 위조지폐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모습 등은 너무 멋있죠.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어떻게 해도 욕을 먹을 건 분명했죠.”

한류스타 송승헌이 영화로 돌아왔다. 우위선(오우삼,吳宇森) 감독의 ‘영웅본색’(1986)을 리메이크한 ‘무적자’를 통해서다. 권상우와 투톱으로 나섰던 ‘속명’(2008) 이후 2년 만의 영화 출연이다. 영화는 무기 밀매 조직의 형(주진모)과 영춘(송승헌), 형사가 또 형을 쫓는 형의 동생 철(김강우), 이들 모두를 제거하고 조직을 손에 넣으려는 태민(조한선)의 이야기를 그렸다.

을 함께 했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한 번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송승헌과 송해성 감독은 ‘카라’(1999) 이후 11년 만에 만났다. 원작에 대한 부담감을 수백에 없었지만 그에 버금가는 리메이크작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송승헌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망가진 모습의 영춘을 보여주려고 5년간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웠다. 충을 분해하는 장면을 실감 나게 표현하기 위해 집에서 총 분해 연습도 했다.

“감독님께서 3년만에 망가진 영춘이를 표현하려면 눈빛을 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잘 몰라 한때는 감독님이 아속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완성된 영화를 보고 나니 감독님이 왜 그런 주문을 했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더 잘 할 수 있었을텐데...”



그는 다음 달 준승계 촬영에 들어가는 드라마 ‘마이 프린세스’에서 김태희와 호흡을 맞춘다.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부드러운 이미지로 시청자들과 만난다. /연합뉴스

EBS 플러스1 and EBS 플러스2 program schedule table.

케이블 가이드

Cable guide table with columns for 재능 TV, CGV, KBS DRAMA, 온스타일, MBC 게임.

TV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오전 ●오후

TV schedule table for KBS1, KBS2, MBC, KBC/SBS, EBS. Includes programs like KBS 뉴스, MBC 뉴스, EBS Talk N Issue, and various dramas.

송창의PD·김성덕작가·신동엽 시트콤 3인방

‘연애빅뱅’으로 다시 뭉쳤다

한국형 촌촌 시트콤의 히트로 불리는 ‘남자 셋 여자 셋’의 송창의 PD와 김성덕 작가, 신동엽(사진)의 3인방이 CJ미디어 계열 케이블 채널인 tvN의 유니버스 드라마 ‘연애빅뱅’으로 다시 뭉쳤다.

7일 tvN에 따르면 이 채널은 19일 밤 12시 ‘롤러코스터 플러스’의 ‘연애빅뱅’을 첫 방송한다. 이 프로그램은 CJ미디어 제작본부장인 송창의가 기획하고 김성덕이 연출하는 드라마로, 신동엽이 내레이션을 맡는다. 1996~1999년 MBC에서 방송된 ‘남자 셋 여자 셋’은 신동엽, 송승헌, 이영희 등이 출연해 큰 인기를 끈 시트콤이다. 신동엽 등 연기자들뿐 아니라 송창의 PD와 김성덕 작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가 됐다. ‘연애빅뱅’은 실제한 B급 연애담을 내용

으로 하는 ‘연애 학습 드라마’로, 처절한 연애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유쾌한 톤으로 담겼다. 신동엽은 다양한 연애 상황에 대해 유풀 있고 감칠맛 나는 신동엽표 애드립을 구사하며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얻어낼 계획이다.

“연애 빅뱅”의 주인공은 탤런트 최성국이 맡았다. 최성국은 자수성가한 노래방 주인으로, 남자들 사이에서는 진국이지만 여자들에게는 매번 차이는 캐릭터를 맡았다. 정자수가 점점 줄어들어 6개월 후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그는 아이를 낳기 위해 결혼에 올인하지만 매번 실패한다. 그밖에 최성국 외에도 시트콤 ‘그분이 오



신다의 정윤민, 영화 ‘과속 스캔들’의 임지규가 출연하며 서영·전세홍·임성연이 최성국 주위의 여자들로 얼굴을 내민다. /연합뉴스

EBS 플러스1 and EBS 플러스2 program schedule table.

케이블 가이드

Cable guide table with columns for 투니버스, OCN, Mnet, 스토리온, 바둑 TV.